

용접 불꽃·쉿소리 잦아들면

예술가 아틀리에 불을 밝힌다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국내편 (4) 서울 문래동 창작예술촌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뚝뚝, 뚝뚝, 뚝뚝”

서울 지하철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에서 나와 100m쯤 걷다 보니 철판을 두드리는 망치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소음의 진원지를 따라가자 ‘문래벤딩’라는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철공소 단지인 문래동 3가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했다. 기자 일행을 안내한 임채휘(보노보C 상임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문래동 1~4가 일대에만 500여 개의 철공소와 철재 관련업체들이 영업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58번지. 삭막하기만 했던 이곳이 언제부터가 ‘문래동 창작 예술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것이 이들 공장이나 상가들 사이에 드문 드문 예술인들의 작업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건물 1층에선 철공소나 상가들이 영업중이고 2, 3층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다. 한 건물에 철공소와 스튜디오가 공존하는 이색마을인 셈이다.



1. 문래동 예술촌은 철공소와 아틀리에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동네다. 문래동은 철공소 직원들의 작업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예술가들의 세상이다.
2. 문래동은 1960~1980년대만 해도 철공소와 철재상가들이 1300여 곳에 이르는 공업지대였다.
3. 넓고 좁은 문래동의 골목.



문래동의 커뮤니티센터인 '카페 수다'의 내부.



철공소 건물 옥상에 마련된 텃밭에서 예술가와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삼겹살 파티를 연다.

이처럼 문래동 예술촌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낮엔 용접 불꽃이 튀고 쇠 두드리는 소음으로 뜨겁지만, 저녁엔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예술가들의 아틀리에로 바뀐다. 하지만 문래동은 1960~80년대만 해도 크고 작은 철공소가 1300곳에 이를 정도로 예술과 거리가 멀었다. 제법 규모가 큰 철공소들이 몰려 있던 골목은 일명 ‘사령골목’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금속을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는 작업을 일컫는 영어의 시어링(shearing)에서 온 말이다. 어찌나 철공소들이 많았는지 당시엔 “문래동에선 미사일도 만든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문래동의 ‘봄날’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일부 철공소들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공장들이 떠난 ‘쓸모 없는’ 건물에 눈독을 들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닌 예술가들이었다. 흥대 앞이나 대학로 등에서 작업을 하던 이들은 매년 오르는 임대료로 적잖은 부담을 받았다. 마침 저렴한 곳을 찾던 예술가들의 눈에 문래동은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15평 규모를 기준으로 월 10만~20만원인 임대료는 서울에서는 구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다.

계다가 천장이 높은 공간과 ‘거친’ 환경은 색다른 맛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특히 밤에 활동하는 인디밴드들에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다. 철공소 직원들이 문을 닫고 떠난 밤 시간에 활동하다 보니 연습중 생기는 소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2000년부터 하나 둘씩 문래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예술가들은 한 때 500여 명에 이르렀다.

젊은 예술가들이 급속히 몰려들면서 침체 일로를 걷던 문래동은 활기를 되찾았다. 처음

눈인사만 나갔던 철공소 직원들이 이곳에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행사 후에는 예술가들과 함께 건물 옥상에 꾸며진 텃밭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외벽이나 골목에 그림을 그려 달라고 (예술가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대신 예술가들은 철공소 주인들로부터 철재와 같은 재료를 공짜로 제공받기도 했다. 또한 예술가들은

500여개 철재 관련업체 영업 중 ‘철공소 단지’ 싼 임대료·거친 작업공간 매력에 예술가 입주 예술활동에 삭막함 가시니 주민들 호의적 변화 재개발 예정·임대료 인상에 예술촌 위기지만 칙칙한 환경 바꾸기 문래동의 실험은 ‘진행형’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열고, 공동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문래동을 예술촌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작가들은 2007년 6월 거리축제인 ‘경계 없는 예술프로젝트 : 문래동’을 열었고, 10월에는 연합축제인 ‘플레이트페스티벌’을 개최해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판을 키웠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찰떡 공합’이었던 건 아니다. 사실 예술가들이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공장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30년도 넘게 살아온 동네의 낯선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게다가 예술

가들의 ‘야행성 스타일’은 눈엣가시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눈에 한참 일할 낮 시간에 ‘쉬고’ 밤에 작업하는 예술가들은 백수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 벽화와 조각 작품들이 차츰 공장지대의 삭막함을 보완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한 철강공장 관계자는 “처음엔 일하는 곳에서 사진 찍는 관광객들이 못마땅했지만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수십년간 철공소에서 작업해온 일들이 재평가 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을 앞둔 문래동에 대해 현 모습을 보존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옛 모습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흔적 남기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임채휘씨는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곳을 창조지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문래동은 군수공장에서 예술촌으로 변신한 중국 베이징의 다산처럼 서울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말하면 문래동은 부산 감천마을이나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처럼 시각적으로 확 끄는 볼거리들이 많지 않아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는 예상했던 것 보다 ‘초라한’ 현실에 실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문래동은 공업지대의 특성상 거칠고 칙칙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화사하게’ 변화하는 데에 시일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문래동의 ‘실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술의 힘을 생생하게 목격한 서울시는 2010년 문래예술공장을 열어 본격적인 ‘마을살리기’에 들어갔다. 철재공장 부지를

매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820㎡ 대형작업실, 다목적 발표장, 카페형 갤러리, 세미나실, 레지던스 공간 등을 마련한 것. 다른 서울시 창작공간들이 시각예술에 집중하는 반면, 문래예술공장은 미디어, 퍼포먼스 등 생소한 장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래동 예술촌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지난해 시내 준공 예정지역에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고, 인근 주민들과 개발업자들은 여전히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작가들이 또 다시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을 앞둔 문래동에 대해 현 모습을 보존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옛 모습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흔적 남기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임채휘씨는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곳을 창조지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문래동은 군수공장에서 예술촌으로 변신한 중국 베이징의 다산처럼 서울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말하면 문래동은 부산 감천마을이나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처럼 시각적으로 확 끄는 볼거리들이 많지 않아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는 예상했던 것 보다 ‘초라한’ 현실에 실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문래동은 공업지대의 특성상 거칠고 칙칙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화사하게’ 변화하는 데에 시일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문래동의 ‘실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jh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SINCE 1990

이태리 가구 전문점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1899-0240